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정부 행사로



광주지방보훈청은 24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기념식을 정부 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지역 고교생 200여명이 광주학생독립운동 88주년을 맞아 당시 학생들의 독립운동 모습을 재연하는 모습.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기념식을 정부 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우리 나라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평가한 바 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2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 방향과 계획 등을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광주민의 항쟁 정신을 '불멸의 광주정신'으로 재조명하

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호남 의병을 시작으로 광주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산동고 진투, 광주3·15운동, 광주4·19혁명,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광주민의 항쟁 정신을 특화한다.

특히 광주지역에 국한돼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을 전국으로 확산·계승·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미 '광주학생독립운동 선양사업 추진 협의회(가칭)'를 구성했으

문대통령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 중 하나”

광주지방보훈청, 행사 정부 지원 확대 계획

며 25일 첫 실무협의를 갖는다

광주보훈청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학생회관, 학생독립운동연구회, 후손자회 및 동지회 등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보훈청은 협의회를 통해 올해 기념행사 방향과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거리 퍼레이드, 사진전시회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정부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 추진 등은 광주시교육청이 사실상 도맡고 있다.

1929년 11월3일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당시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 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여학생을 희롱하자 한국 남학생들이 격분하면서 촉발됐다

현 전남여고의 전신인 광주공립

여자보통학교와 광주제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일본의 만행에 항거, 분연히 일어나 가두시위와 동맹휴교 등을 벌였다.

6만여명이 항일운동에 나섰고 2000여명이 구속됐다. 3·1운동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항일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과거 임진왜란을 포함해 의병 숫자로 보면 전라남도도가 가장 많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다며 ‘의병부터 독립운동, 5·18에 이르기까지 광주가 시초가 돼 전국적으로 번진 보훈 정신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보훈의 정신들이다. 보훈 정신은 어느 지역이든 어떤 국민이든 부정하지 못한다. 보훈 정신으로 지역적인 한계를 깨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은홍 기자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인증 박차

광주 동구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재인증과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3대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2018년 상반기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며, 아동의 의견을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편성 시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지난해 동구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서구, 제2회 광주서구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광주 서구가 ‘숨어있는 우수한 관광자원 발굴’을 주제로 제2회 광주서구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공모전을 통해 서구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호수공원, 서창만드림 공연제, 영산강 서창들녘 여새축제 등을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작품은 세계적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과 문화역사 명소, 생동감 넘치는 축제 및 전통민속의 서구지역의 풍경 및 주민 공동체 활동상이 담겨 있는 옛 사진도 가능하다.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1인당 4점씩 오는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062-228-4774)에 제출하면 된다.

남구, 학교급식식재료 배송업체 공개 모집

광주 남구는 24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관내 일선 학교에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배송해 줄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날 친환경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배송업체 선정을 위한 서류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구는 공개모집을 통해 남구 소재 업체와 타 지역 소재 업체를 각각 1곳씩 총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구는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업체 선정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평가, 3차 공개추첨 등을 거쳐 업체를 선발하기로 했다.

북구,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광주 북구가 주민 참여를 통해 날로 늘고 있는 불법주정차 확산 방지에 나선다.

북구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26개 동별 5~6명씩 총 124명의 자치관리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단속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스스로의 자정문화 확산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장덕도서관, 신간도서 구입금 기부 릴레이

하루 평균 대출 권수 500여권에 육박하는 수원지구 장덕도서관을 위해 주민들의 행복한 기부 릴레이가 펼쳐졌다.

2017년 12월 26일 장덕도서관 동아리 “책길표” 100만원을 시작으로 장덕도서관 봉사동아리 “책숲지킴이” 110만원, 협동조합 수완이깨물무 50만원까지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며 작년 이어 나눔을 계속해서 실천 중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넨 기부금은 2018년 장덕도서관 신간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기부 스티커를 제작하여 책을 접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임행택 기자

“폐지 줍는 순천 어르신 없게 할 것”

윤병철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순천시장 출마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병철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가 순천시 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병철 상임대표는 노인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점을 들며 순천에서만큼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없게 만들겠다고 노인생활에 대한 보살핌을 강조했다.

기존 노인수당에 2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예산비전 방법으로는 불요불급한 재원을 정리하고 복지 전달과정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대표는 순천시와 중소기업 및 농업 그리고 고학력 청년실업자와 지역대회가 연동하는 혁신공동체를 정책을 소개 했다.

또 덴마크 코펜하겐 브리질리우 등 각 도시를 들면서 열리고 있는 세계환경회의를 탐사르습습지인 순천만에 장설 매년 고정 개 최함으로써 순천만을 세계환경도



시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표는 순천고를 졸업하고 순천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순천 토박이로 순천시의회 3선 의원으로 재임 시 시민의 소리를 깊이 듣고 겸손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노관규 전 시장님과 조중훈 시장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에서는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울미의 변을 미쳤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시, 인구 절벽 맞춤형 정책 ‘스타트’

5개 부서 광주전남연구원 협업

광주시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맞춤형 인구정책에 사동을 썼다.

광주시는 24일 “5개 부서 관계자와 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해 오는 26일 오후 4시 시청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업팀은 인구와 정주 여건 변화를 감안해 종합적 인구정책을 마련,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꾸려졌다.

그동안 합계출산율 증가 위주의 개별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주거, 저출산 등 인구정책을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 인구 정책을 위한 10가지 제안’을 주제로 발제한 데 이어 부서별 추진사항을 공유한다. 3월에는 화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청년과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주거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 인구정책 로드맵을 구축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인구정책 연

구 ▲저출산 아동 ▲청년 정책 ▲주택 ▲일자리정책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의 7대 생활권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발전계획, 인구정책 등을 연계해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밖에 2020년까지 행복주택을 건설해 사회 초년생과 신혼 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구정책 집행팀을 설치해 광주지역 인구정책 현황 및 통계를 파악했으며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올해는 협업팀을 운영해 본격적인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5년 151만명 수준이었던 광주시 인구는 2045년에는 139만명으로 감소, 생산가능 인구가 책임져야 하는 총 부양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 · 나주 · 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전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 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 목 공 사 >> 창 업 상 담 >> 관 계 민 원 업 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